



예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만 베푸시는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

- **분별의 인장 (Seal of Discernment)** - 영혼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파악하고,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 **진리의 축복 (Blessing of Truth)** - 영혼에게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알아내고 악의 가면을 벗기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2013년 3월 16일. 예수님: “나는 이 성지에,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이의 이마에 내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 인장의 보호 아래 영혼들은 자신의 구원으로 가는 길 즉,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것이다. 오래된 죄악들은 밝혀질 것이다. 내가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앞서 언급한 약속의 핵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은 진리를 찾아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올바른 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오류를 찾거나 하지 않는다. 그는 있을 수도 있는 오류는 언제나 진리나 현실, 사실들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는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며, 진리에 마음을 열고자 한다. 이 ‘분별의 인장’의 보호가 진리를 드러낼 것이다.”

모란: “과거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나요?”

예수님: “만약 그들이 부정하려 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의향 없이 열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면 내 인장이 그들에게도 머무를 것이다.”

모란: “그저 메시지들만 읽을 뿐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문제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도저히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나는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갈망을 존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영적인 인장을 지닌 모든 이가 내 성심에 인장처럼 찍혀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해

준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2013년 3월 18일. 예수님: “너는 마음속에 사려 깊은 질문을 품고 있구나. 내게 질문하여라.”

모란: “저는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 성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메시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 자동적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수님: “그것은 오직 그들이 이 성지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일 때만 그렇다. 즉, 이곳으로 오는 여정을 가로막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혼은 스스로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란: “인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인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우선,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인장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 상태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또한 도와준다. 이 인장을 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다. 이전에 진실한 마음은 곧 진리에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네게 말해준 적이 있다. 이해가 되느냐?”

모란: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2013년 5월 28일. 예수님: “나는 유일무이하고 매우 특별한 은사인 ‘분별의 인장’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이 인장은 ‘진리의 세례’에 비교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례’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진리의 세례’는 (양심) 조명처럼 영혼이 세상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달도록 도와줌으로써 영혼을 한번 씻어준다. 반면에 ‘분별의 인장’은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번 이 인장을 얻은 영혼은 진리 외엔 그 어떤 것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의 영혼은 다른 이들에게서 보이는 기만과 속임수에 대해 대단히 예민해진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옹호하라는 내적 부름을 느낀다. 내 ‘양심의 깨달음의 인장’은 영혼이 내세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과 함께 한다.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 이 인장을 얻는다. 이들은 이 메시지들과 이곳의 내 선교사업에 마음이 열려 있으며 선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29일. 예수님: “나는 오늘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고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 진실한 마음은 믿음에 열려 있으며, 이 선교사업이나 성지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다. 진실한 마음은 믿지 않음으로써 무언가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그런 이는 이 선교사업을 시기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곳에 온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이곳에서 주는 모든 것을 반박하기 위해 이 성지에 오지 않는다. 그는 또한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천상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하느님의 손이 써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백지와 같으며, 빈 그릇을 바다에 던져놓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부와 같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프리즘(분광기)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제각각 다르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총을 얻지 않는다.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성지에서 보내는 모든 현 순간은 제각기 독특한 은총을 지니고 있다. 천상은 모든 감각들 즉,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활용하여 이곳에 천상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분별의 인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 뿐이다. 이 인장은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이 인장은 천상의 계획에 따라 이곳 성지에서만 주어진다.”

2014년 6월 3일. 복되신 어머니: “모든 이는 이곳이 베푸는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이 성지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성지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이에게 ‘분별의 인장’이 주어질 것이다. 이 인장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큰 혼란이 세상의 마음에 거미줄을 쳐 놓아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의 양심을 비취줄 이 귀중한 인장을 크나큰 은총으로서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2014년 9월 14일. 예수님: “지금 이 시대는 영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시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분별의 인장’을 베푸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악의 수용을 낳았으며 이런 수용은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도덕적으로 퇴폐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의로운 이들은 이런 타락에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신념에서 용감해져야만 한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넘어가지 마라. 나는 이곳 성지에서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축복’을 줄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예수님: “모든 영혼은 내게 소중하며, 마땅히 그들 모두에게 진리의 빛이 알려져야만 한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사악한 만큼 나는 계속해서 이 메신저와 이곳 성지[마라나타 샘과 성지]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이에게 내 ‘진리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진리의] 축복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로 들어가는 영혼의 영적 여정이 더 깊어지도록 영혼에게 자기 인식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내 눈에 어떤 지도부가 훌륭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거짓과 부패한 지도자들을 지지하거나 따를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며, 영혼은 좀 더 쉽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모란: “예수님,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진리의 축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이 진리의 타협과 지도부의 권한 남용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모란: “(그 축복은) 이곳에 이미 왔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소급적인 것인가요?”

예수님: “아니다.”

모란: “그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성지로 와야만 하나요?”

예수님: “그렇다.”

모란: “이곳에 오는 이들은 모두 다 그 축복을 얻나요?”

예수님: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만 그렇다.”

2014년 9월 18일. 예수님: “너는 ‘진리의 축복’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오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 진실한 마음이란 이 선교사업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는 어떤 숨은 의도도 없는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분별에 대한 나의 설명을 연상시킨다. 분별은 선입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아니다. 참된 분별은 진리를 찾아 헤매며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다.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 또 성급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 나는 이런 자들에게는 내 ‘진리의 축복’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축복을 베푸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들은 진리의 타협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또 누가 권한을 남용하는지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들을 내 비통

한 성심 안에서 보호할 것이다.”

2014년 9월 27일. 예수님: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사악한 시대를 인식하여라. 지금 이 시대는 죄가 재정되고 간과되는 오류의 시기다. 또한 사악한 혼란에 의해 계획된 신성모독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시기다. 이것이 너희가 권한 남용과 진리의 타협을 깨닫기를 요청하면서 내가 비통한 성심으로 너희에게 오는 이유다. 이것이 내가 자비롭게 너희에게 내 ‘진리의 축복’을 베푸는 이유다. 나는 이 [진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사도직을 도유(塗油)한다.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사랑의 진리의 사도가 되기를 요청한다. 나는 인간이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인간의 양심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모든 권위가 다 의롭거나 맹목적인 복종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도록 돕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양심이 반드시 계명들에 의거한 선과 악에 관한 진리 안에서 잘 형성되어야 하는 때다. (여기에는)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된다. 혼란은 구원의 길의 걸림돌이다. 계명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이 때까지 논쟁거리가 된 적도 없다. 죄는 죄다. 가장 편리한 길이나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협조적인 길을 가기를 선택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진리의 빛 안으로 부른다. 이것을 선택하여라.”

2014년 9월 29일. 성 미카엘 대천사: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예수님의 허락 하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성공적으로 악을 선으로 위장했습니다. 그자는 숨은 의도들을 감추고, 세상에서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존경과 재물, 권력에 대한 애착을 부추김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런 야망들은 겸손과 거룩한 사랑에 반대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외관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적과 싸우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적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악은 좋은 뜻을 품은 영혼들 안에서 지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곳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베풀어지는 ‘진리의 축복’과 ‘분별의 인장’이 선과 악의 싸움에 한층 더 중요성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영혼에게 진리를 알아내고 악의 가면을 벗기고 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복되신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모든 갈등은 마음속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을 받는 영혼들도 진리 대신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여전히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하느님께서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은 선과 악이 좀 더 분명하게 정의되도록 도움으로써 영혼으로 하여금 선의 진리에 저항하는 것이 더욱 어렵도록 만든다. 영혼의 마음은 모든 무질서한 사리사욕이나 야심을 피하면서 진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

2014년 12월 19일. 예수님: “너희가 이 성지에 오면,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닌 이상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분별이란 선입견이나 어떤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마음 없이 진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2015년 1월 27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을 얻도록 그들을 다시 한 번, 그리고 항상, 이 기도 성지[마라나타 샘과 성지]로 초대한다. 이 특별한 은사들이 없다면 너희는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도록 쉽게 속아 넘어간다. 너희의 우선 사항들도 타협되는가 하면, 너희는 다른 이들의 가치 없는 의견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혼란이다. 오늘날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는 누가 말하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은총들은 진리를 타협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해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이 은총들로 인해서 이런 견해들을 내려놓으라는 깨우침을 얻는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혼이 선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 겉보기엔 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악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리의 축복’은 감춰져 있는 것을 영혼이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분별의 인장’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는다. 당연히 악은 이런 진리들을 폄하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5년 5월 30일. 예수님: “너는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의 차이에 대해 마음속으로 묻고 있다. ‘분별의 인장’은 영혼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리의 축복’은 영혼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각각의 경우에서 ‘영혼을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여라.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2015년 7월 15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오늘, 개인적 거룩함에 있어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부디 깨달아라. 이 두 가지는 다른 모든 덕의 창고다. 만약 이 창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찾아낸다. 그자는 창고를 포위하고 있는 도둑이며, 창고의 보안을 뚫으려고 노력한다. 이 겸손과 사랑의 창고의 출입구는 진리다. 세상을 향해 있는 창문들은 유혹들이다. 이 창고에 이르는 길은 진리의 추구이며,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양심의 깨달음이다. 창고의 지붕은 내 보호의 망토다. 이것을 안다면, 이곳 발현 성지에서 아낌없이 주어지는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의 중요성을 이해하여라. 너희는 바로 이 은총들을 통해서 사탄이 너희의 창고로 몰래 숨어들기 위해 사용하는 ‘갈라진 틈새’들을 너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갈라진 틈새’들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또는 덕이 악함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장된 도난 경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평화의 부족이다. 이 경보가 울리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도둑이 어떤 방법으로 침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March 22, 2021)